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FIREMAN

가제 : 소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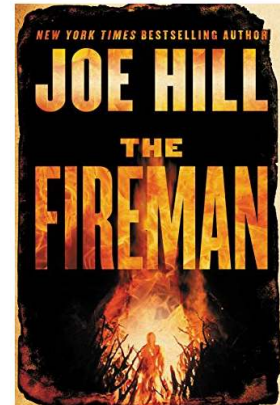
저자 : Joe Hill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6년 5월 17일

분량 : 768 페이지

장르 : 호러



온 세상을 집어 삼키는 불길의 사람의 몸 속에서 시작되다, 화마를 만들어내는 전염병

도시 전체를 집어 삼켜버린 화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온갖 노력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미국 전역에 퍼져 보스턴을 잠식하고 디트로이트, 시애틀까지 번져나갔다. 불길이 이토록 삼시간에 번진 건, 자꾸만 새로운 불씨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났기 때문인데, 그 불씨는 바로 사람의 몸이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피부에 너무 익혀버린 고기 덩어리처럼 거무죽죽하고 벌건 자국이 줄처럼 생기고 그 줄을 따라 황금빛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균에서 나온 포자에 감염된 증상이고 백선균의 일종인 ‘드라코 인센디아’가 원인 균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용의 비늘을 닮은 희한한 증상을 보고 이 병을 ‘드래곤 스케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피부병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단 몸에 이 이상한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 몸 속에서 불길이 확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서 터져 나온 불길, 피할 수도 없는 뜨거운 열기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용처럼 불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되고, 주변까지 불길이 번져나갔다. 전염성은 엄청난데 치료할 방법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수백만 명이 일제히 감염되어 공기 중에 포자가 수없이 떠돌아다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다.

뉴햄프셔 주에서 양호교사로 일하던 하퍼는 이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자, 지역 병원에서 자원 봉사를 시작했다. 연일 넘쳐나는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지만, 결국

우려했던 대로 하퍼 역시 드래곤 스케일에 감염되고 말았다.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던 당시, 사실 하퍼는 남편 제이콥과 굳게 약속을 했었다. 두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면, 부지불식 간에 타올라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감염 사실을 알게 된 하퍼는 그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워오는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생존 전쟁, 재난이 만들어낸 악마와 영웅들

마침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 같은 뉴스도 전해졌다. 임신한 여성이 드래곤 스케일에 감염됐는데,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이다. 한 가닥 희망이나마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 하퍼는 제이콥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버텨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의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굳이 출산을 감행하려는 하퍼를 설득하다 질려버린 제이콥은 결국 자신은 아기를 원치 않는다는 아내를 공격하기에 이르고, 하퍼는 가까스로 몸을 피한다. 갈 곳을 잃은 그녀는 봉사활동을 했던 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는 묘한 남자를 만나 도움을 얻는다. 낡고 해진 노란 소방관 제복을 걸치고 병원 현관에 작은 꼬마를 안고 나타나 얼른 치료해달라고 고향치던 남자, 사람들이 ‘소방관’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존 록우드. 그는 하퍼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녀를 인적이 드문 곳에 마련된 작은 캠프로 데려간다. 드래곤 스케일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캠프에서 사람들은 존의 보호를 받으며 병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존 역시 환자였지만, 놀랍게도 그는 피부 바로 밑에서 스멀스멀 솟구쳐 오르려는 불길을 스스로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다. 하퍼는 겨우 안정을 찾지만, 도시는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불길보다 뜨거운 악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병을 퍼뜨리는 환자를 보이는 족족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과격한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에서 시작된 이들의 광기 어린 행태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하퍼는 제이콥이 이 단체에 들어가 괴물처럼 변해버린 사실을 알게 된다. 살아남으려는 자들과 공포에 이성을 잃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도 서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성심껏 돕고 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소방관의 정체, 하퍼는 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뱃속의 아기를 무사히 낳기 전까지 생존하기 위해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조 힐(Joe Hill)은 베스트셀러 소설 『NOS4A2』, 『Horns』를 쓴 작가로 ‘그람 스토키 상(Bram Stoker Award)’를 두 차례 수상했다. 트위터 팔로워가 22만 명이 넘는 인기 작가로, 『Heart-Shaped Box』을 비롯한 작품들이 프랑스,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 번역 출간됐다.

제목 : THE BOOK THAT MATTERS MOST

가제 : 내 인생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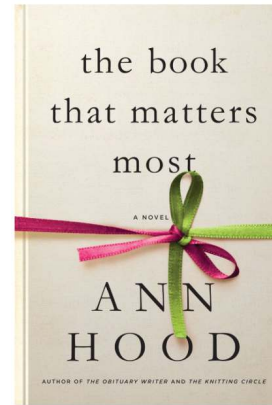
저자 : Ann Hood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6년 8월 9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Woman's Fiction



푸시카트상(pushcart)상 수상작가의 신작!!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으로 붙잡은 북 클럽이 던진 숙제 하나, “인생 최고의 책을 찾아라”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남편과 헤어진 뒤, 아바는 책 속 세상으로 되돌아갔다. 어린 시절에도 견디기 힘든 현실로부터 달아나게 해준 그 세상에 또 다시 절박하게 기대게 될 일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지만, 남편이 가족들을 버리고 새 인생을 찾아가버리자 아바는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북클럽에 가입했다. 절친한 친구인 케이트가 벌써 20년 전부터 같이 다니자고 설득해왔기에 아바는 이 특별한 모임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회원을 딱 10명으로 제한하는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결원이 생길 때만 새 회원을 모집했다. 책으로 만난 인연은 가족 중 누군가가 결혼을 하거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늘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괴로운 일, 상심할 일이 생긴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챙겨가서 위로해주는 특별한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짐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때만 해도 케이트의 권유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아바는 이 모임에 당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다.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텅 비어버린 시간들을 함께 해 줄 좋은 사람들,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대감이 절실했다. 아바는 자신의 생각이 이토록 바뀌어버린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며, 그 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남편은 별의별 신기한 지식을 백과사전처럼 두루 섭렵한 똑똑한 남자였다. 아바는 연애 시절부터 결혼한 뒤에도 남편 짐이 마냥 좋았고, 마냥 믿음직했다. 아주 오래 전, 아바는 여동생 릴리와 엄마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버린 비극적인 일을 겪은 뒤로 책 속에만 파묻혀 살았지만 짐은 그녀가 다시 현실로 나올 수 있게 끌어준 동아줄이었고 더없이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건 아바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유난히 잠이 안 와서 뒤척였던 어느 밤, 평온하다고 굳게 믿었던 결혼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다. 거실을 서성이던 아바는 어둠 속에서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짐의 휴대전화 화면을 우연히 보았고, 그 화면에는 보고도 믿기 힘든 글이 떠 있었다. “자기야, 보고 싶어.” 다급히 짐을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당신보다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졸린 눈으로 웅얼대기만 할 뿐이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수렁에 빠진 엄마와 딸, 책 한 권에 담긴 변화의 열쇠

두 아이들마저 제각기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나고, 아바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간 아바의 딸 매기는 멋진 소설을 쓰겠다는 허무맹랑한 꿈을 키우고 있었지만 펜을 들고 노트를 펴고 앉아 글을 쓰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무 쓸모 없는 일들로 허비하고 있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가득 채워온 것으로 모자라 그가 다녔다는 파리의 유명한 카페며 바를 전전하던 매기는 ‘영감’을 떠올려야 한다는 핑계로 이런 저런 남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영국, 호주, 독일, 국적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함께 밤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사실 매기는 철학에 심취한 한 남자를 쫓아 파리까지 왔지만 그는 매기더러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파리까지 따라온 매기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그가 정말로 퇴짜를 놓자 허탈해진 매기는 아버지가 엄마와 이혼하고 건넌 두툼한 용돈을 파리에서 다 쓰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대낮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 전날 밤 술, 약, 섹스를 함께한 남자가 떠나간 텅 빈 호스텔에서 빈둥대고, 해질녘이면 글을 쓴다는 핑계로 카페나 술집에 가는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매기는 전철에서 어떤 프랑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 때부터 그와의 헤어날 수 없는 파괴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말았다.

친구 케이트의 초대로 북 클럽에 들어간 아바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각자 골라보자는 클럽의 올해 목표를 전해 듣고 문득 책 한 권을 떠올린다. 여동생과 엄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시절, 아바를 트라우마에서 구해준 책이 한 권 있었다. 아바에게는 그 책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책이 분명했다. 흐릿해진 기억을 더듬어 그 책을 찾아나선 아바는 뜻밖에도 자신의 과거에 얹힌 비밀을 발견하고, 머나먼 다른 나라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딸 매기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낸다.

사랑과 상실, 비밀, 우정, 문학이 선사하는 치유의 힘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맛깔 나게 그린 따뜻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앤 후드(Ann Hood)는 베스트셀러 소설 『The Knitting Circle』, 『The Red Thread』, 『Comfort』, 『An Italian Wife』 등을 쓴 작가로 푸시카트 상(Pushcart Prize)’을 두 차례 수상했다.

제목 : PENDULUM

가제 : 추

저자 : Adam Hamdy

출판사: Headline

발행일: 2016년 11월 3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소설



자신의 집에서 살인 표적이 되어버린 남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연쇄살인범과 목을 조여오는 밧줄

월리스는 눈을 떴지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가리개가 돌려져 있고, 옷은 속옷 한 장만 남기고 모두 벗겨진 채 어딘가에 눕혀져 있었다. 얼마 동안이나 정신을 잃었는지 가늠할 수도 없었다.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대문으로 나갔던 기억이 마지막이었다. 누군가 틀어놓은 음악 소리로 보아 집 안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 월리스는 이 호화로운 런던의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삶이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다고 늘 확신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봤자 돌아오는 건 실망감이나 배신감, 고통뿐이어서 그는 남들과 되도록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둔 관계들, 서로 표면만 보여주고 내면은 굳이 들여다보지도, 보여주지도 않는 관계들만 남겨놓았다. 하지만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손발이 묶여 얼굴도 알 수 없는 적에게 꿈쩍 못하고 있는 지금, 월리스는 제발 아무라도 딱 한 명만 이곳에 와주기를 절절히 바랐다. 윗집에 사는 레오나가 떠올랐다. 워낙 다혈질이라 음악을 이렇게 크게 틀어놓으면 시끄럽다고 찾아오지 않을까? 월리스는 안대에 갇힌 불안한 어둠 속에서, 레오나가 잔뜩 화가 나서 찾아왔다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경찰을 부르는 장면을 상상했다. 하지만 모두 환상일 뿐, 월리스는 지금껏 레오나가 소음 문제로 찾아오거나 이웃들에게 불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랫집에 사는 르빈도 마찬가지였다. 먼 옛날에는 교회였던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이 건물은 방음효과가 워낙 뛰어나서, 제아무리 볼륨을 높여봐야 누군가를 거슬리게 할 만큼 그 소리가 퍼지지도 않았다. 월리스는 누군지도 모르는 침입자에게 무작정 빌기 시작했다. 이러지 말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자 미지의 적이 성큼 성큼 월리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두꺼운 카펫을 밟는 소리에 이어, 월리스는 누워있는 자신의 머리 뒤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을 느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대는 찰나, 안대가 벗겨졌다. 등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했다. 누구일까? 월리스는 제발 이 모든 사태가 장난이기를, 혹은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려고 저지른 짝박한 복수극이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조금 뒤 월리스가 목에 두꺼운 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찰나, 올가미가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고,

상대방은 일어나면 일이 더 쉽게 끝날 거라며 어서 몸을 일으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기적처럼 얻은 생존의 기회, 생사를 결정짓는 운명의 추를 움직이는 자

목젖을 강하게 누르는 줄을 느끼면서, 월리스는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던 때를 떠올렸다. 교수대에 올라가 처형을 기다리던 한 남자의 얼굴, 그를 향해 카메라 렌즈를 고정시킨 채 뷰파인더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저들은 달아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의아해 했던 그 때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월리스가 카메라로 본 그 남자는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미 다 끝났다는 절망감과 깊은 공허함이 죽음을 앞둔 그의 눈빛으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한 이 순간, 월리스 자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팔다리를 힘껏 허우적덜수록 올라가는 더 강하게 목을 조여왔다. 서서히 천장으로 끌어올려진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비로소 침입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시커먼 부츠에 까만 가죽 바지, 입 부분이 철제 망사로 가려진 까만 전투용 마스크, 까만 고글, 기다란 검정색 가죽 코트를 걸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 그러나 월리스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운명을 완벽하게 가린 옷과 마스크 뒤에서도 자신을 향한 증오심과 미움, 분노가 강렬히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운명의 추가 반대편으로 획 방향을 틀었다.

정체 모를 침입자에게 꿈쩍없이 죽는 줄 알았던 월리스는 숨이 끊어질 뻔 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야 한다. 운명은 지금 잠시 그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추가 언제 다시 반대편으로 내달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침입자가 월리스를 쫓아오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애덤 함디(Adam Hamdy)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으로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다양한 만화와 소설을 영화로 옮기는 작업에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데이비드 미첼의 소설 『Number9Dream』를 영화로 각색했다.

제목 : EACH AND EVERY STEP

가제 : 선택의 순간들마다

저자 : Randall Klein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365페이지

장르 : 소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첫 아이를 품에 안은 두 부부, 순간의 선택으로 어긋나버린 인연

아침 8시도 되기 전부터 기온이 30도를 넘어버린 날, 두 남자가 각자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뉴욕 전체를 삶아버릴 듯 들끓는 폭염에 전철도 멈춰버리고 통신사 기지국까지 여파가 미쳐 전화까지 잘 터지지 않는 이상한 날이었다. 새벽부터 집을 나서 맨해튼 북쪽 끝까지 와버린 마이클, 그리고 아내와 미처 다 끝내지 못한 대화를 뒤로하고 출근길에 오른 폴, 이 두 남자의 머릿속에는 한 여자에 대한 생각이 가득 했다.

마이클과 폴이 처음 만난 건 1년 전, 뉴욕 임신부들 사이에서 실력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어느 산부인과의 보호자 대기실에서였다. 마이클의 아내 레베카와 폴의 아내인 제니는 같은 날 같은 병원을 찾아왔다. 꼼꼼하고 야무진 레베카는 출산은 여자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힘든 분만 과정을 혼자 버티겠다고 미리 단언했다. 오히려 몇 시간이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 남편을 걱정하며 그가 좋아하는 간식이며 책까지 다 챙겨주는 살뜰한 아내가 마이클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행복한 부모가 되어 다시 돌아올 생각에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사이 좋게 손을 맞잡고 집을 나섰다. 폴과 제니 부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 며칠 후면 진한 커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는 제니는 폴이 정성스레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출산을 하러 병원으로 왔다. 폴은 제니가 분만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곁을 지키며 힘내라고 속삭여주고 싶었지만, 제니 역시 그러길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마이클과 폴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남자들이 가득한 공간,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각자 아내와 새로운 가족을 기다렸다. 어느덧 4시간이 흐르고, 레베카가 챙겨준 간식을 다 먹어 치운 마이클은 담배를 피우려 잠시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심정으로 나온 폴과 마주쳤다. 병원 밖 담벼락 밑에서 대화의 물꼬를 튼 두 남자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날 첫 아이를 기다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쾌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둘 다 사내아이라는 공통점과 곧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초조함과 기대감을 공유하며 친근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만남이 두 부부를 갈라 버릴 가장 무서운 인연이 될 줄은, 둘 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 가지 말았어야 할 장소, 스스로의 선택이 만든 재난 같은 운명

서로 사는 곳과 하는 일을 자연스레 이야기하다가, 폴은 마이클이 가구도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얼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책벌레인 제니가 바닥에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만 놓고 있던 터라 책장이 꼭 필요했던 참에, 출산 기념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마이클은 제니가 세심하게 디자인을 골라준 예쁜 명함을 꺼내 폴에게 건넸다. 두 남자 사이에서 오간 짧은 대화, 마지막에 건넨 명함 한 장, 그것이 모든 악연의 시작이었다.

1년 뒤, 제니와 부적절한 사이가 되어버린 마이클은 그녀와 꼭 같이 보기로 약속한 그림을 보러 아침 일찍부터 폭염도 뚫고, 평온하게 잠든 가족들을 집에 남겨둔 채 어느 미술관 앞에 도착했다. 한 번도 제시간에 온 적이 없는 제니가 이렇게 더운 날 약속시간을 지킬 리가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마이클은 이 떳떳하지 못한 만남과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한없이 후회되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자꾸만 제니를 원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조금 뒤, 오늘 못 갈 것 같다는 그녀의 문자메시지에 마이클은 집으로 발길을 돌리며 깨달았다. 처음부터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궤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버린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그 시각, 출근길에 나선 폴은 인파로 가득한 출근길 전철에 가까스로 몸을 실었지만 결국 이스트 리버를 지나는 터널 안에서 전철은 멈춰서고 만다. 집을 나설 때부터 줄곧 떠나지 않는 생각이 어둠에 갇힌 폴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위태위태한 결혼생활, 떠나려는 제니를 붙잡아야 한다.

두 남자가 번갈아 가며 들려주는 현재의 삶과 1년 전 각자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던 때의 이야기에 30대 비슷한 또래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과정과 부모가 되면서 느끼는 뜨거운 기쁨, 좌절감, 혼란스러움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이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지도 못한 여파가 자기 자신은 물론 아내와 아이에게 얼마나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을 펼쳐놓듯 보여준다.

<저자 소개>

랜달 클라인(Randall Klein)은 뉴욕에서 도서 편집자로 일하며 글을 쓰고 있다. 위 작품은 그의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LIVE HAPPY

가제 : 행복하게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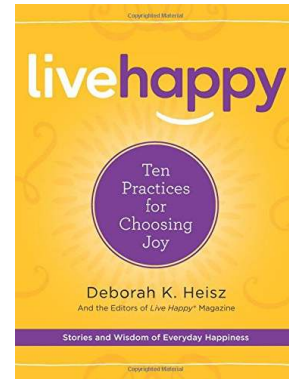
저자 : Deborah K. Heisz

출판사: HarperElixir

발행일: 2016년 3월 1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주어진 환경, 유전적인 요소도 모두 뛰어넘어 진짜 행복한 삶을 만드는 10가지 행복의 비밀

고대 철학자들부터 디지털 혁명으로 더 나은 삶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하는 현대사회의 전문가들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공통의 목표가 있다.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토록 큰 발전을 이룩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마음 속 깊이 행복을 느끼고픈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점점 깊어져만 간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하버드 대학에서는 ‘긍정 심리학’이라는 수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국제연합(UN)은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두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창간된 「Live Happy」 매거진은 북미 대륙 전역,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행복 캠페인을 벌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라이프스타일 잡지 중에서는 최초로 행복하게 사는 법, 한 가지만을 주제로 다루어온 이 잡지는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탄탄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다양한 행복 찾기 전략들을 소개하며 과학, 영적 탐구, 문화, 전 분야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지혜를 모아 독자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행복의 핵심 전략 열 가지를 선별하여, 잡지와 동일한 제목으로 이 책을 엮었다.

각 장은 감사하는 법, 생활 태도, 노는 법, 목표 세우기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고 주제마다 실제 사례들과 과학적으로 분석한 행복의 실체, 커다란 행복을 얻기 위해 소소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행복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소개된다. 이를 통해 행복은 분명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물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눈 색깔이나 성격처럼 행복도 타고나는 것이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까? 행복이란 마치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처럼, 어쩌다 기회가 닿을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쌍둥이를 대상으로 행복의 유전학적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나 그 외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행복은 분명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크지만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활동이 좌우하는 몫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몫이 행복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행복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누구든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유전적, 환경적 요소의 몫을 뛰어 넘는 수준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식을 바꾸면 진정한 행복이 바로 눈 앞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평생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놀랍도록 단순하고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행복 설명서다.

<목차>

머리말

행복의 진실

태도

유대감

의미

창의성

감사하기

마음 들여다보기

건강

회복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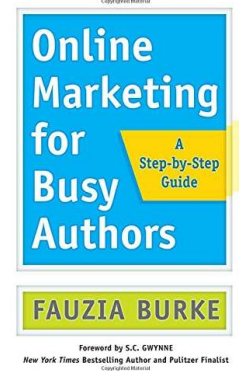
영적인 삶

돌려주기

<저자 소개>

데보라 K. 헤이즈(Deborah K. Heisz)는 격월로 잡지 「Live Happy」를 발행하는 업체 ‘Live Happy LLC’의 편집장이자 ‘COO’의 공동 설립자로, 전 세계 행복 전문가들이 전하는 조언과 긍정 심리학의 과학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잡지와 동일한 제목으로 팟캐스트와 웹사이트, 의류와 생활용품 브랜드도 운영 중이다.

제목 : ONLINE MARKETING FOR BUSY AUTHORS
가제 : 글쓰기 바쁜 작가들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저자 : Fauzia Burke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6년 4월 19일
분량 : 168 페이지
장르 : 경영/마케팅



누구든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 소중한 작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수 있는 온라인마케팅 전략 작가가 되기에 지금처럼 좋은 때는 없었다. 인터넷 세상이 열린 덕분에, 작가는 독자들에게 글을 쓰자마자 바로 보여줄 수 있고 한 작가의 열성 팬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함께 응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광범위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갓 데뷔하여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려는 작가 지망생이든 신인 작가든, 이미 일년에 서너 편씩 책을 내는 중견 작가든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까?” 디지털 도서 마케팅 분야를 개척하고 세계적인 작가들의 책을 직접 알아 홍보해온 저자는, 작가가 좋은 작품을 쓰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책을 제대로 알리려면 자신만의 온라인 브랜드를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노력은 생각보다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소셜미디어의 종류만 봐도 어질어질할 지경인데,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저자는 20년 동안 다양한 작가들과 일하며 온라인으로 책을 홍보하는 일을 해오면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정된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들어낸 작품을 효율적으로 널리 알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글 쓰는 시간도 모자란 작가들에게 딱 알맞은 가장 효율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이 책에서 친절히 설명한다.

책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작가 개개인의 온라인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본다. 글을 쓰는 동기가 무엇인지,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어떤 독자들이 자신의 책을 읽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정보들이 귀중한 시간을 어디에 배분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정한 우선순위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이어진다. 글을 쓰고 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과 작품의 성패가 명확히 드러나려면 최소한 한두 해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처럼 실천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웹사이트 디자인하는 방법과 ‘슈퍼 팬’들의 이메일 목록 작성해서 팬들을 관리하는 법, 블로그 관리 요령,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온라인 상에서 작품이 조금 더 이목을 끌도록 만드는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든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여러 작가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저자에게 토로한 것처럼, 작가 자신이 홍보 활동에 지쳐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소개된다. 단순히 '무엇'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디에' 게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에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단계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옛 지혜를 기동으로 삼아, 저자는 작가로서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 매력을 살려 특별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상에서 개성 넘치는 브랜드가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자연스레 찾아온다. 또한 한 번 자리잡은 자신만의 브랜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쓴 책에 대한 대화의 장이자 독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온라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작가들이 늘 두려워하는 인터넷 공간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소개한 정보들이 가득하다.

<목차>

1단계: 체계화하라

1. 개인 브랜드 만들기 기초
2. 꿈은 크게
3. 독자를 알아야 하느니
4.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5. 비즈니스 세계에서 최고의 조언
6. 우선순위 목록

2단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라

7. 온라인 마케팅 계획
8. 나만의 웹사이트 만들기
9. 팬들의 이메일 리스트
10. 블로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파지아 버크(Fauzia Burke)는 도서 디지털 브랜드 구축과 온라인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FSB Associates)'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1995년부터 2천 건이 넘는 온라인 도서 홍보를 진행해 왔다.

제목 : THE STRESS SOLUTION

가제 : 스트레스 해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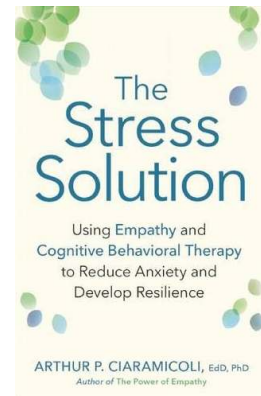
저자 : Arthur Ciaramicoli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6년 6월 1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공감 능력과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하여 불안감을 없애고 회복력을 높이는 스트레스 관리법

현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너무 길고, 처리해야 할 일은 방대한데 잠자는 시간은 늘 부족하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그 시간에 쏟아야 할 에너지까지 턱없이 부족하니 틈날 때마다 머릿속에 의문이 솟는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인의 절반이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스트레스 때문에 쉬이 잠들지 못하고, 4분의 3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미국 심리학회회가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저자는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살면서 생길 수 밖에 없는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 인식과 반응에서 수많은 결과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스트레스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저자는 그러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사랑과 애정을 주고 받아야 할 소중한 관계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분명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확신했던 목표가 막상 현실이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가득한 감옥이 되어 발목을 잡고 만다는 사실을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변화해야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공감적 인지행동치료’라는 새로운 스트레스 관리법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뇌의 정서적인 기능을 평온하게 해주는 공감의 기술과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를 접목시킨 이 방법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성공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일과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고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감할 줄 알아야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끼고, 이타심을 알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공감과 동정을 혼동하지만, 공감은 상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할 줄 아는 객관적인 능력이라는 점에서 동정과 큰 차이가 있다. 상대의 이야기가 사실이나,

아니냐를 굳이 따지지 않고도 수긍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인지행동치료는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 감정이 개개인의 행동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으면 행동과 기분도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저자는 이 두 가지를 접목한 공감적 인지행동치료 방식을 다양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35년 동안 직접 적용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목격했다고 전하면서, 이 효과를 독자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우울증, 불안감, 중독에서 헤어나고, 오랜 세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상처에서 벗어나 두려움, 과도한 경계심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이 기술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현실적이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갈등,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바꾸고 훨씬 즐거운 삶을 사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목차>

- 1장. 스트레스를 관리해야만 하는 이유
 - 2장. 인간성의 확대: 공감을 키워라
 - 3장. 공감하며 듣기: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 4장. 영혼을 위한 처방: 신경물질을 잠재우는 법
 - 5장. 스스로 만드는 환상: CBT로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 6장. CBT 실천: 왜곡, 개인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 7장. CBT 실천: 자학적인 생각을 버리고 스트레스의 굴레를 끊는 법
 - 8장. CBT 실천: 중독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법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Arthur Ciaramicoli(아서 시아가미콜라이)는 임상 심리학자로 활동해 왔다.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Soundmindz.org'에서 수석 의료책임자로 일하면서 4만 2,000명의 유료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목: PICASSO'S DEALER(가제)

가제: 피카소를 만든 사람들

저자: Hugh Eakin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프로포절 80페이지

장르: 역사/예술



무시 당하던 무명의 스페인 화가가 미국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그 길을 열어준 사람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예술가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피카소의 인기는 도통 식을 줄을 모른다. 어디든 피카소 작품이 전시되기만 하면 관람객들이 몰려들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다. 올 초 미국에서 열린 피카소 조각 전시회에는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무려 80만 명이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며 연일 문화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 뜨거운 인기를 보면, 불과 1939년 1월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파블로 피카소’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스페인 출신으로 미국에서는 무명 화가나 다름없었던 그가 어떻게 불과 1년여 만에, 미국 근대미술의 전형적인 인물이자 갓 미술계에 발을 디딘 신인들에게 누구보다 큰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인정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전위적인 예술가라는 매몰찬 평가를 받았던 피카소는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을까? 저자는 바로 그 놀라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피카소에서 시작된 현대 예술계와 예술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그 과정에 참여한 여러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책에서 살살이 들여다본다.

피카소라는 화가가 급부상한 배경에는 작품의 판매를 담당했던 프랑스계 유대인 폴 로젠버그(Paul Rosenberg)와 당시 미국 현대미술관의 젊은 감독이던 알프레드 바(Alfred Barr), 두 남자가 있다. 저자는 이 두 사람이 1939년 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 40년의 예술 세계”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기까지 치러야 했던 온갖 고초와 노력을 상세히 전하고, 이 전시회가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화가를 예술계 전면으로 우뚝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당시 세계 정세가 피카소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추적하고, 수백 점에 달하는 피카소의 작품들이 나치의 손에 넘어갈 뻔 했지만 뜻밖의 연대가 결성되면서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미국에서 1939년에 힘겹게 열린 그 전시회 이후 유럽과 미국의 예술계에 불어 닥친 아방가르드 작품의 뜨거운 열풍을 전한다.

침예한 대립 각을 세웠던 라이벌 관계, 편협한 생각이 낳은 집착, 평탄하게 유지되지 못한 복잡한 연대 관계, 최후의 순간 가까스로 모면한 위기의 순간들, 피카소라는 위대한 화가를 세상에

알리는 과정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뒤따랐다. 저자는 그 치열했던 과정에 주목하여 누구보다 뛰어난 선견지명을 가지고 피카소를 우상으로 만든 두 인물의 이야기와 새로운 미술 시장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폭넓게 분석한다. 1938년 피카소의 작품 <아비뇰의 처녀들>을 단돈 2만 8,000 달러에도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던 미국 현대미술관이 2015년 <알제의 여인들>을 무려 179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격변의 과정과 이유를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프롤로그

파블로 피카소

1장. 로젠버그와 피카소의 연대

2장. 로젠버그, 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3장. 독일이 파리를 침략하고, 피카소는 뉴욕을 점령하다

4장. 전후 예술시장의 탄생

에필로그

<저자 소개>

휴 에킨(Hugh Eakin)은 「The New York Review of Books」의 선임 편집자로 일하면서 터키,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 국가의 뉴스를 제공해 왔다. 「뉴욕타임스」, 「뉴요커」, 「월스트리트저널」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DEAR CHAIRMAN

가제 : 회장님 귀하

저자 : Jeff Gramm

출판사: HarperBusiness

발행일: 2016년 2월 2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영/역사

"The story of the rise of shareholder activism has never been told as compellingly and memorably as Jeff Gramm offers in *Dear Chairman*, which has chapters for dramatic deeds and brings to life the unbelievable characters of the past hundred years."
—ARTHUR LINDV, *Forbes*, *Business*,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DEAR CHAIRMAN

BOARDROOM BATTLES and the
RISE of SHAREHOLDER ACTIVISM

JEFF GRAMM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적극적인 투자자들, 그들이 등장한 배경과 영향력

대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동적인 태도로 수익을 기대한다. 이들은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투자한 기업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식을 서둘러 처분할 뿐이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 투자한 지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기업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이처럼 주주가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존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 과정을 이 책에서 추적해본다. 특히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물꼬를 튼 여덟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선별하여, 이들이 투자한 회사에 직접 보낸 서신을 주된 자료로 삼아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주주와 기업의 관계 구도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본다.

기업이나 조직체의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활약한 것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공공 투자자라는 존재가 생겨난 직후부터 투자자와 이사회, 경영진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400년 전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한편, 공적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이사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19세기에도 미국의 교각, 운하, 항구, 철도, 은행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업의 주주들은 운영 상황을 늘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는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 주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길 만큼 거대한 기업은 없고, CEO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왜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권의 일정한 몫을 가졌다는 이유로 회사를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쓸까? 주주가 으뜸이 된 이 같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일까? 저자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여덟 명의 투자자가 회사 대표에게 보낸 서신을 토대로 하나하나 분석해본다.

1927년, 벤자민 그레이엄이 ‘노던 파이프라인’ 대표 존 D. 록펠러 주니어에게 보낸 편지에는

과잉 자본을 분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워렌 버핏이 196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회장 겸 CEO인 하워드 클럭에게 보낸 서신은 이후 버핏의 커리어 전체를 바꾸어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로스 페롯이 1985년 ‘제네럴 모터스’의 회장 겸 CEO인 로저 스미스에 보낸 서신에는 대담하고 노골적인 페롯의 대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의 편지에 고스란히 담긴 회사와 투자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결국 경영권 인수나 기업 담보의 차입 매수, 현금 배분, 또는 회사 자체를 무능한 관리자와 함께 처분해버리는 조치 등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주주의 권한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변화의 물꼬를 튼 여덟 명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목적과 동기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저자는 주주들이 경제적인 수익이라는 큰 동기를 잃지 않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한 앞으로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고, 이 관계를 토대로 각 회사의 자산 가치를 매기고 현실화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목차>

1. 벤자민 그레이엄 vs. 노던 파이프라인:

현대 주주 참여주의의 탄생

2. 로버트 영 vs. 뉴욕 센트럴:

프록시티어, 밴더빌트 선을 급습하다

3. 워렌 버핏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샬러드오일 스캔들

4. 칼 아이칸 vs. 필립스 페트롤럼:

현대사회 기업의 파괴

5. 칼라 세러 vs. R. P. 세러:

캡슐에 둘러싸인 왕국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제프 그램(Jeff Gramm)은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여러 공기업의 이사를 맡고 있다. 또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비상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DAISY'S GIFT

가제 : 데이지의 선물

저자 : Claire Guest

출판사: Virgin Digital

발행일: 2016년 7월 1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후각 하나로 암세포를 찾아내고 혈당 변화를 감지하며 사람의 생명을 지켜온 개들의 이야기

개의 탁월한 후각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는 일에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길을 찾는 일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초인종이나 전화기 위치를 찾는 일도 개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저자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개의 후각을 더욱 유용한 일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바로 암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탐지하는 일이다.

가끔 뉴스에서는 주인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애완견이 찾아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한다. 그런 소식이 한 번 화제가 되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들이 쏟아지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경험담일 뿐 정말로 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 어느 날, 동고동락하던 애완견 데이지가 갑자기 가슴 쪽을 코로 쿡쿡 찌르며 커다란 갈색 눈망울로 한없이 얼굴을 쳐다보기에 속는 셈 치고 유방암 검진을 받아본 저자는, 검사로도 찾아내기 힘든 몸 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접했다. 데이지가 아니었다면 아주 늦게야 발견했을 테고,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 잊지 못할 경험을 계기로, 저자는 다른 사람들이 데이지와 개들이 정말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증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의 소변 샘플 중에서 개가 암세포가 있는 소변을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이 진행됐다. 스테인리스스틸 접시에 담긴 소변 샘플 여섯 개 중 하나에 방광암 환자의 소변이 포함되어 있었고, 총 여섯 마리의 개가 실험에 참여했다. 2주 뒤, 귀여운 개들이 천진난만하게 샘플을 찾아낸 확률이 다른 암 진단검사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놀라운 결과가 확인됐다. 비침습법인 방식으로 암세포를 찾는 기존의 진단법은 성공률이 25퍼센트지만, 개들이 암세포 샘플을 찾아낸 확률은 무려 93 퍼센트였다! 대성공을 거둔 이 실험의 내용과 결과는 곧 저명한 학술지에도 게재됐다. 이후 저자는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개의 후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의료 탐지견(Medical Detection Dogs)’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개와 함께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일을 시작했다.

철저히 훈련 받은 개들은 방광암, 전립선 암, 신장 암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은 물론 아이들의 몸에 발생한 다양한 증상을 집어낸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알려주기도 하고, 부신 피질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에디슨 병을 감지하기도 한다. 알레르기, 기면증 환자 또한 돕고 있다. 지병 때문에 몸 상태가 언제 또 나빠질지 몰라 늘 긴장하며 살아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선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완치될 수 없는 병이 급속히 나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특히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개들의 이 특별한 능력이 밤새도록 아이 상태를 지켜보아야 하는 수고로움과 불안을 크게 덜어준다. 축축한 코로 쿵쿵대며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찾아내려 집중하는 개들의 사랑스러운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 책에서 그 동안 저자와 함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함께 해낸 개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목차>

1. 스포티
 2. 러플
 3. 마침내 개들과 일을 시작하다
 4. 온 집안이 개판
 5. 우디
 6. 구더기가 들끓던 사람
 7. 한국에서
 8. 더 나빠지지는 않겠죠, 그렇지요?
 9. 힐링의 시작
 10. 내 목숨을 구해준 데이지
 11. 숙면
 12. 왕실과의 약속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클레어 게스트(Claire Guest)는 심리학 박사로서 ‘애완견 행동상담사 협회’에서 일하다가 자선단체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에서 활동했다. 이후 20년 이상 개의 후각을 질병 진단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훈련해 왔다. 2004년에는 「영국 의학협회지」에 훈련된 개를 이용한 암 진단 실험 결과를 게재했다.